

LGD, 흑자전환에도 부채 19조 '압력'... 체질개선 성과 시험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 2% 그쳐
패널가격 등 업황 변동시 흑자 위태
정철동 3년차... 성과 가시화 전망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전경.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중국업체들의 공세와 전방 수요 둔화 등 불확실한 업황속에서 지난해 흑자전환했지만 지속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업계가 공급경쟁 심화와 수요변동성 확대 등으로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어 수익성 회복과 재무 구조 개선이라는 과제를 올해 동시에 풀어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술통' 정철동 사장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질 개선 성과는 취임 3년차인 올해 가시화될 전망이다.

10월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25조 8101억원, 영업이익은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5606억원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지만 부채 축소와 현금창출력 회복 등 재무 체질 개선 필요성은 여전히 남

아있다는 평가다.

4분기 LG디스플레이의 부채 총계는 약 19조원 규모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24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순차입금도 11조원에 달해 실제 기업의 재무 부담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따른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2%에 그쳐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수익성이 충분히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4분기 실적에는 국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등 인력 구

조 효율화 비용으로 900억원 이상이 반영됐다. 이 같은 일회성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적 반등이 본격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패널 가격 조정이 겹칠 경우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도 따른다. 더욱이 시장 최대 변수로 꼽히는 반도체 가격 상승도 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된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월 실적발표에서 "메모리 등 세트 부품 비용 상승에 따른 고객사의 패널 가격 인하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수요 변동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영향도를 계속 체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영업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의 현금을 창출했으나 설비투자 등으로 인한 자금 유출도 이어졌다. 회사의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조 3340억원을 기록했다.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 비용이 반영되며 영업활동에서 현금 유입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9790억원 유출로 나타났다. OLED 공장 투자와 관련 장비 도입 등이 이어지면서 설비투자에 따른 현금 지출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철동 사장은 지난 1월 CES에서 기술 중심 회사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직 내부 성장동력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IT기기에 탑재되는 중소형 OLED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OLED 시장의 중심도 대형에서 중형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띠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IT용 OLED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는 현재 6세대 OLED 생산 설비 중심으로 중소형 패널을 생산하고 있어 급증하는 IT OLED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LCD에 이어 OLED 기술력도 추격해 오는 중국 BOE 또한 8.6세대용 IT OLED 투자에 나서는 가운데, LG디스플레이는 재무 부담이 상존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 쉽지 않은 점도 변수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업계는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기업들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기아, '더 뉴 니로' 계약 개시... 2885만원 부터

복합연비 20.2km/L... 동급 최고수준
정원정 부사장 "실용적 선택지 될 것"



기아 더 뉴 니로.

기아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성을 갖춘 경제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착한차'를 출시했다. 바로 친환경 SUV 니로의 부분변경 모델 '더 뉴 니로'다.

기아는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에서 '더 뉴 니로'를 공개했다. 더 뉴 니로는 2022년 1월 출시한 2세대 니로를 기반으로 약 4년 만에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동급 최고 수준의 복합 연비(20.2km/L·16인치 휠 기준)를 확보했다.

이날 정원정 기아 국내사업본부 부사장은 "전 세계 누적 판매 120만대를 기록한 니로는 국내 하이브리드 SUV 최고 연비와 여유로운 실내 공간성을 갖춘 모델"이라며 "소비자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는 신형 니로에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시스템 최고 출력 141마력(ps), 최대토크 27.0kgf·m의 성능을 확보했다. 복합연비는 20.2km/L로 국내 하이브리드 SUV 중 가장 높은 연비를 자랑한다.

실내 공간은 2720mm의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동급 대비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넉넉한 헤드룸과 레그룸을 확보해 장거리 이동에서도 쾌적한 주행경험을 제공한다.

또 다양한 편의사양을 대거 적용해 운전자의 피로도를 최소화 했다. 주차 편의성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적용해 차량 주차와 출차의 부담을 낮췄다. 12.3인치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를 적용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편의성을 강화했다.

기아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기능을 적용해 음성 명령으로 다양한 차량 기능을 제어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차량 정차 상태에서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STAY 모드'도 추가됐다. 니로의 판매 가격(개별소비세 3.5% 적용)은 친환경차 세제혜택 후 기준으로 ▲트렌디 2885만 원 ▲프레스티지 3195만 원 ▲시그니처 3464만 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모비스, 벤츠 새시모듈 추가 공급

헝가리 신공장 본격 가동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모비스는 북미에 이어 유럽 지역 시장 공략을 위해 최근 벤츠와 새시 모듈 공급계약을 맺고 헝가리에 전용 생산 거점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2022년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을 통해 벤츠에 새시 모듈을 공급해온 신뢰를 바탕으로 유럽 지역에서도 같은 부품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모비스는 헝가리 신공장을 통해 전기·하이브리드 차종용 새시 모듈을 공급하는 가운데 내연차 혼류 생산을 위한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다.

계약 관례상 공급 금액과 대상 차종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새시 모듈이 많은 부품을 포함하고 벤츠가 프리미엄 브랜드인 점을 고려하면 공급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헝가리 중부지역 케치케메트에 위치한 신공장의 부지는 축구장 7개 크기인 5만㎡ 규모다. 고객사로부터 생산 계획을 실시간으로 접수해 생산하는 '직서열'(Just In Sequence) 생산 방식이 채택됐다.

현대모비스는 헝가리 신공장을 유럽 내 4번째 생산거점이자 첫 글로벌 고객사 전용 거점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유럽 생산거점은 체코, 슬로바키아, 터키 등 3곳으로 모두 그룹사인 현대차·기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폭스바겐에 배터리 시스템(BSA)을 공급하기 위한 스페인 공장이 조만간 가동을 시작하면 현대모비스의 유럽 생산거점은 총 5곳으로 늘어난다.

현대모비스는 "2033년까지 글로벌 고객사 대상 매출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북미, 유럽 등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선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인도 등 고성장 신시장에서도 수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아파트 맞춤형 AI 솔루션 공급 확대

건설 B2B 시장 진출 가속화

LG전자가 아파트 맞춤형 AI 솔루션 공급을 늘리며 기업 간 거래(B2B) 사업 성장을 가속화한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포스코이앤씨 주거 브랜드 '더샵'에 공급해 온 씽큐온이 누적 1만 세대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씽큐온은 생생형 AI가 탑재돼 고객과 일상 언어로 대화하며 맥락을 이해하고, 생활 패턴을 학습·예측한다. 덕분에 입주민은 LG전자 가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IoT 기기를 마치 대화하듯 음성으로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다.

또한 LG전자가 AI홈 플랫폼 '씽큐' 앱을 통해 제공 중인 아파트 특화 기능 '우리 단지 연결' 서비스의 적용 세대도 올해 1분기 기준 30만 세대를 넘어섰다. 이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신도시 전체 아파트 수를 상회하는 규모다.

아파트 특화 AI 홈 솔루션은 LG전자가 건설 B2B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다. LG전자는 건설사가 요구하는 고품질 빌트인 가전과 AI홈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앞세워 B2B 시장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LG전자 노범준 HS AI홈솔루션사업개발담당은 "LG전자만의 독보적인 가전 기술력에 AI홈 플랫폼 '씽큐'와 허브 '씽큐 온'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앞세워 최적의 공간 경험을 제공하고 B2B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이노텍,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 '리더십 A'

LG이노텍이 2025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3년 연속 '리더십 A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 2만2100개 기업 중 3%에 불과한 766개 기업이 리더십 A를 받았고, 국내에서는 35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LG이노텍은 탄소중립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2040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들을 발 빠르게 실행 중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LG이노텍은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6 CDP 코리아 콘퍼런스'에서 '탄

소경영 섹터 아너스'도 받았다. LG이노텍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ESG(환경·사회적 책임·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문형수 LG이노텍 사장은 "피지컬 AI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전력 수요가 기후변화를 앞당기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ESG 경영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ESG 리더십을 통해 차별적 고객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